

단호하게 외치는 “NO!”

◎ 본문말씀: 예레미야 35:1-11

1유다의 요시아 왕의 아들 여호야김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2너는 레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와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하시니라

3이에 내가 하바시냐의 손자요 예레미야의 아들인 야아사냐와 그의 형제와 그의 모든 아들과 모든 레갑 사람들을 데리고

4여호와와 집의 이르러 익다랴의 아들 하나님의 사람 하난의 아들들의 방에 들었는데 그 방은 고관들의 방 결이요 문을 지키는 살룸의 아들 마아세야의 방 위더라

5내가 레갑 사람들의 후손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종지와 술잔을 놓고 마시라 권하매

6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7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8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9살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10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11그러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 땅에 올라왔을 때에 우리가 말하기를 갈대아인의 군대와 수리아인의 군대를 피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자 하고 우리가 예루살렘에 살았노라

◎ 묵상하기

레갑 족속은 아브라함의 후손은 아니지만, 이스라엘이 광야생활을 하던 시절부터 그들과 뜻을 같이해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들의 선조인 요나답은 예루살렘에 정착해 살면서 자손들이 타락하게 될까 봐 포도주를 먹지 말고, 천막에 지내며 유목 생활을 하라고 명령했는데, 그 후손들이 그의 명령을 지금껏 철저히 지켜온 것입니다(6-10절). 세상에 물들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믿음을 지키고자 했던 그들의 신념은 당시 최고 예언자인 예레미야의 제안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레미야가 제시한 시험에 조금의 망설이도 없이 “NO!”를 외친 것입니다. 이들의 울골은 신앙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필요할 때만 순종하려 했던 유다 백성에게,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나에게 순종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좋은 본보기입니다.

◎ 적용하기

내게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상과 구별되어 믿음을 지켜나가기 위해 했던 결단이 있나요? 그러나 그 결단이 때와 장소에 따라 계속해서 흔들리고 있다면, 오늘 레갑 족속의 단호한 “NO!”를 기억해야 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누구 앞에서도 자신의 소신을 지켰던 레갑 족속의 신실함이 내 삶에도 있기를 바랍니다.

◎ 생각하기

■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지키기 위해 세운 원칙이나 약속이 있나요? 그것들을 지금도 잘 지키고 있나요?

■ 하나님 앞에서 세운 결단들이 자꾸만 쫓대 없이 흔들린다면 어떻게 바로 세울까요?